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! 새로운 국민의 나라

보도시점 2023. 10. 12.(목) 09:30 < 10.12.(목) 석간 > 배포 2023. 10. 11.(수)

20주년 맞은 한-칠레 자유무역협정(FTA), 새로운 협력 확대를 논하다

- 한국과 칠레 경제인 양국의 미래 산업 협력을 논의

한-칠레 자유무역협정(FTA) 서명 20주년을 계기로 양국 경제인들이 함께 모였다. 그간 자유무역협정(FTA)을 기반으로 구축해 온 굳건한 경제협력 관계를 공급망, 디지털, 녹색(그린) 에너지 등 새로운 분야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.

칠레는 한국의 최초 자유무역협정(FTA) 체결국이며, 한국은 칠레의 아시아 최초 자유무역협정(FTA) 체결국이다. 한-칠레 자유무역협정(FTA) 체결 이후 양국 간 교역량은 약 5배 증가하였으며, 코로나 범유행(팬데믹)으로 인한 공급망 교란과 이에 따른 세계적 공급망 개편 흐름에서 양국은 상호호혜적 핵심 동반자(파트너)로 성장하였다.

올해는 한-칠레 자유무역협정(FTA) 서명 20주년이 되는 해로, 이를 기념하여 대한상공회의소(KCCI)와 칠레산업협회(Chilean Federation of Industry, SOFOFA)는 10월 12일 서울에서 제23차 한-칠레 경제협력위원회를 개최하였다.

한-칠레 경제협력위원회는 1979년 설립 이후 지난 45년간 활발히 운영되어 온 양국 간 대표적인 민간 경제협력 통로(채널)이다. 지난 2019년 4월 제22차 회의 이후 코로나 범유행(팬데믹)으로 중단되었다가 올해 3년 반 만에 다시 개최되었다.

이 행사에는 산업통상자원부 방문규 장관과 칠레 경제개발관광부 니콜라스 그라우(Nicolas Grau) 장관이 참석하여 양국 경제인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라고 당부하였다.

한편,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도 칠레 경제개발관광부 장관과 별도로 면담하고 양국 간 통상, 핵심광물 공급망, 녹색(그린) 에너지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, 2030 세계박람회 최적의 후보지로서 부산의 강점을 설명하고 칠레 측의 적극적인 지지를 요청하였다.

담당 부서	통상정책국 중남미대양주통상과	책임자	과 장	류동희 (044-203-5630)
		담당자	주무관	김승재 (044-203-5633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